

#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가 자신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Comparing Effects of Academic Achievement on Academic Self-Concept in  
Adolescent Siblings: The Mediating Role of Differential Maternal Treatment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전공  
석사 위현아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박성연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Hyun-Ah W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Seong-Yeon Par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on academic self-concept among adolescent siblings. The sample consisted of 438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in Seoul ( $M = 15.2$  yrs.), who had a sibling.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cademic achievement compared with a sibling and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had direct effects on academic self-concept, indicating that children with higher academic achievement scores than their sibling and with perceived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reported a significantly higher academic self-concep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s compared with a sibling and academic self-concept was mediated by maternal differential treatment.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in educational settings as a basis for improving the academic self-concept of early adolescents.

**주제어(Key Words)** :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학업적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 형제비교(sibling comparison), 차별적 양육행동(differential treatment)

**Corresponding Author** : Seong-Yeon Park, Ph.D.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072 Fax: +82-2-3277-2852 E-mail: psy@ewha.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92.3%의 학부모들이 자녀가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기 원한다고 하였고, 과반수이상의 학부모들이 가계에 부담이 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답하였다(현주, 이재분, 이혜영, 2003).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81%가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의 51%가 그 원인을 '성적, 진학 문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동의 학업성취는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에 의하여 예측될 수 있다(김기정, 1985; Guay, Larose, & Boivin, 2004; Marsh & O'Mara, 2008). 학업적 자아개념이란 자신이 지각하는 특정한 학업적 영역에서의 유능감이나 학업을 잘하는 것에 대하여 두는 가치이다(Bouchey & Harter, 2005). 학업적 자아개념은 아동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핵심적인 요인일 뿐 아니라(김기정, 1985; 김순혜, 1997; Marsh & O'Mara, 2008), 아동의 전반적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아개념,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아개념에서 학업성취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Top-down effect', 학업성취에서 자아개념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Bottom-up effect', 그리고 자아개념,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성취가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영향력 관점'의 세가지 관점이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아동이 처한 학습 환경이 경쟁적일수록 아동이 느끼는 학업성취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Bottom-up effect가 강해짐을 알 수 있다(양명희, 2005; Köller & Baumert, 2006). 따라서 학업이 강조되며 경쟁적인 학습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현주 외, 2003), 아동의 학업성취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업적 자아개념은 주로 학업성취에 대한 선행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학업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자신이 성취한 학습수준을 자신과 함께 학업을 수행한 타인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개인적 판단이다(김기정, 1985).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같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 아동이라 하더라도 비교의 기준이 되는 타인의 성취가 어떠한가에 따라 학업적 자아개념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형제는 개인에게 있어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형제와 아동은 비교적 평등하지만 동시에 경쟁적인 구도를 유지하게 된다(Cicirelli, 1995). 또한 형제관계에서 각 형제는 서로의 학업적 성취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학업적 성취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각

형제의 학업성취가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자신의 성취를 비교하는 대상보다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높아지는 반면, 비교 대상보다 아동의 학업성취가 낮을 경우 학업적 자아개념은 낮아졌다(임형신, 2008; Coleman & Fufts, 1982; Marsh, 1995).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학업적 자아개념을 비교하는 대상인 형제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높을 것이며, 형제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낮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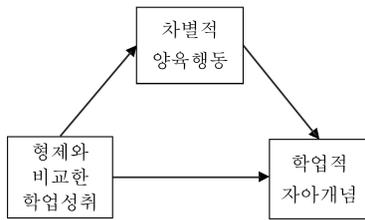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동료들의 능력과 비교할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고려하여 자신이 얼마나 우수함을 결정한다(Bong & Clark, 1999). 이 때 부모나 교사, 형제나 또래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아동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동이 학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별적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고 차이를 두어 다르게 반응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Daniels & Plomin, 1985).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 혹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이환주, 2004; 조진희, 1998; Dunn & McGuire, 1994; McHale, Updegraff, Shanahan, Crouter, & Killoren, 2005)에 근거해 볼 때, 부모가 아동에게 편애하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높아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학업적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아동의 성이나 출생순위, 연령터울에 관심을 두어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 가족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부모와 각기 다른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을 보고해왔다(박영애, 1995; 상미현, 김지신, 도현심, 1999; Atzaba-Poria & Pike, 2008; Tucker, McHale, & Crouter, 2003).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아동의 학업적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3)나, 청소년의 성적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배민경, 2008; 최지선, 2009)에 기초해 볼 때, 형제간 학업성취의 차이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차별적 양육행동은 각기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업적 자아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선행변인으로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도나, 차별적 양육행동을 다루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및 차별적 양육행동이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함께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경로를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그림 1〉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차별적 양육행동 및 학업적 자아개념에 관한 이론적 경로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 2, 3학년생 총 438명(남: 183명, 여: 2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2, 3학년생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해당 아동과 아동의 형제까지를 포함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에 포함되는 대상아동의 형제 연령이 학업적 성취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중 238명(54%)이 순위 형제였고 200명(46%)이 손아래 형제였으며, 대상자 형제의 성은 남학생 217(49%), 여학생 221(51%)로, 대상자와 형제간의 평균 연령차는 2.48(SD = 0.94)세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아동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 및 학업적 자아개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는 아동이 형제의 학업성취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과 형제간의 학업성취의 차이

를 어느 정도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작한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연속변수화 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대상 아동과 형제의 학업성취도 우세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아동과 형제 중 누구의 성적이 더 높은지 ‘똑같다(0점)’, ‘형제(1점)’, ‘나(2점)’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과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묻는 내용으로 차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전혀 없다(1점)’, ‘차이가 조금 난다(2점)’, ‘차이가 많이 난다(3점)’,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4점)’로 응답하는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위 2문항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연속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즉, 1번 문항에서 나보다 형제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의 경우 2번 문항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응답할수록 낮은 점수로(1~3점), 1번 문항에서 형제보다 나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의 경우 2번 문항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로(4~6점)변환하였다. 변환된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에 비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차별적 양육행동은 학업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양육행동으로 측정되었다. ‘차별적인 양육행동’은 이재구(2000)의 학업기대와 학업압력을 측정한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 설문지와 Deci(1995)가 제안한 네 가지 부모행동요인의 개념에 맞추어 임은미(1998)가 제작한 ‘부모행동점검서’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한 ‘차별적 양육행동’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1 = 그 형제를 훨씬 더, 5 = 나를 훨씬 더),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신에게 학업적 영역에서 편애하는 차별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문항(이재구, 2000; 임은미, 1998)을 차별적인 학업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3문항에 대하여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방식을 사용하였고,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 1요인에는 아동의 학업을 격려하는 차별적 양육행동에 관한 12문항이 포함되었으며 ‘학업 격려’로 명명하였다(예: 누구의 공부에 대한 의견을 더 존중해주십니까?). 제 2요인에는 아동에게 학업적 성취에 대한 압력을 주는 차별적 양육행동에 관한 8문항이 포함되었으며 ‘학업 압력’으로 명명하였다(예: 누구에게 공부에 관한 압박을 더 많이 주십니까?). 따라서 총 20문항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으며,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차별적 양육행동의 신뢰도는 학업 격려요인 .88, 학업압력요인이 .73으로 전체 Cronbach's  $\alpha$ 는 .77이었다.

3)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적 자아개념은 '지각된 유능감' 과 관련된 문항으로 김호권(1979),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를 수정하고 축소한 김기정(1985)의 자아개념 검사 중 학업적 자아개념 관련 20문항만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성취수준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성취감' 의 총 8문항 (예: 나는 이만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능력감' 의 총 6문항 (예: 나는 조금만 공부를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감' 의 총 6문항 (예: 나는 상급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으로 나누어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아개념에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학업적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능력감' 이  $\alpha = .75$ , '성취감'  $\alpha = .88$ , '기대감' 이  $\alpha = .83$ 으로 전체 20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alpha = .92$ 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학교 두 곳에서 교사를 통해 아동용 설문지 총 800부를 배부한 후 약 2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734부 중 무성의하게 답변한 47부, 외동이거나 형제의 나이가 10세 이하 혹은 20세 이상으로 분석에 부적합한 설문지 208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에 목적에 따라 형제간 성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41부를 제외한(총 296부 제외) 43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 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 간에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경로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잠재변인을 표현하고자 할 때 다중측정변인을 이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김계수, 2007), 단일점수인 학업적 자아개념은 문항내용을 기초로 문항묶음(Parceling)을 한 후(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문항들은 '성취감(8문항)' (예: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 성적에는 자신이 있다.), '능력감(6문항)' (예: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재주를 타고난 것 같다.), '기대감(6문

항)' (예: 나는 상급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으로 묶었다.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각 요인의 신뢰도는 성취감 .88, 능력감 .75, 기대감 .83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집크기에 영향을 받는  $\chi^2$ (홍세희, 2000)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내 주는 RMSEA, TLI, CFI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인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Anderson & Gerbing, 1988).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잠재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에 나타난 요인을 서로 연결하여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후,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밝혔다.

1. 측정모형 분석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 차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구성개념들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 = 27.73$ ,  $df = 11$ , CFI = .992, TLI = .985, RMSEA = .059(90%의 신뢰구간: .037~.072)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는 모든 변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측정변수는 이론변수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

<표 1>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438)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S.E.	C.R.	P
형제비교 학업성취	성적우세여부	1.000	.941			
	학업성취차이	3.723	.968	.137	27.211	***
차별적 양육행동	학업격려	1.000	.612			
	학업압력	1.878	1.158	.221	8.494	***
학업적 자아개념	성취감	1.000	.812			
	능력감	.959	.882	.047	20.527	***
	기대감	1.016	.875	.050	20.428	***

\*\*\*p < .001

〈표 2〉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438)

	1	2	3
1. 형제비교 학업성취	1	.405**	.287**
2. 차별적 양육행동		1	.339**
4. 학업적 자아개념			1
평균	.81	3.02	3.06
표준편차	1.81	.48	.69

\*\* $p < .01$

다(표 1).

한편,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표 2). 즉, 형제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학업적으로 편애하는 차별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지각하였고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학업적으로 편애하는 차별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은 높았다.

2. 구조모형 분석: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및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에 대한 이론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각각  $\chi^2 = 27.73$ ,  $df = 11$ ,  $GFI = .982$ ,  $AGFI = .954$ ,  $NFI = .987$ ,  $TLI = .985$ ,  $RMSEA = .059$ 로 나타나, 이론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우

〈표 3〉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438)

$\chi^2$	df	GFI	AGFI	NFI	TLI	RMSEA
27.73**	11	.982	.954	.987	.985	.059

\*\* $p < .01$

〈표 4〉 이론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N = 438)

경로	B	$\beta$	S.E.	C.R.	P
형제비교 학업성취 → 차별적 양육행동	.086	.472	.014	6.326	*
차별적 양육행동 → 학업적 자아개념	.360	.176	.093	3.882	**
형제비교 학업성취 → 학업적 자아개념	.082	.221	.021	3.950	*

\*\* $p < .01$ , \* $p < .05$

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 따라서 이론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과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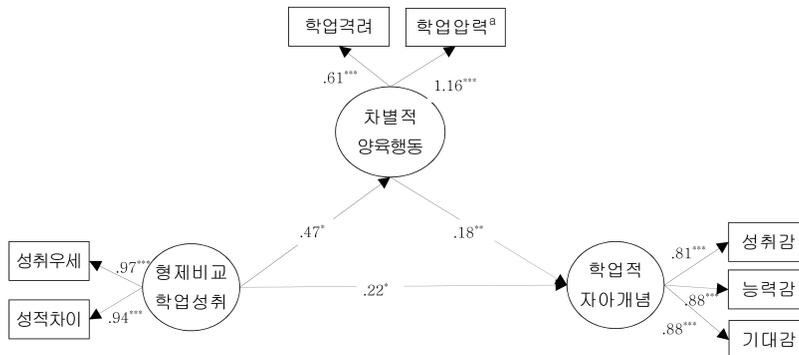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는 어머니의 차별적인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 $\beta = .472$ ,  $p = .019$ )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차별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정적인 영향( $\beta = .176$ ,  $p = .008$ )을 미쳤고,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는 자신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 $\beta = .221$ ,  $p = .019$ )을 미쳤다.

한편,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효과성 검증에 제시된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구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표 5〉 이론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N = 438)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형제비교학업성취 → 차별적양육행동	.472	-	.472
차별적양육행동 → 학업적자아개념	.176	-	.176
형제비교학업성취 → 학업적자아개념	.221	.083	.304



°역코딩한 요인

\*\*\* $p < .001$ , \*\* $p < .01$ , \* $p < .05$

〈그림 2〉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차별적 양육행동과 학업적 자아개념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분석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학업성취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 ( $\beta = .083, p = .009$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형제와 비교하여 느끼는 아동의 학업성취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43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아동이 지각한 형제와 비교한 아동의 학업성취가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이론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는 차별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아래에서는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아동이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 차별적 양육행동의 직접적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는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형제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이 높아지며, 형제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아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느끼는 유능감이 낮아졌다.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재아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취를 비교할 수 있는 또래의 성취수준에 따라 높은 학업적 자아개념이 유지되거나 하락한다고 보고한 국외의 연구결과와(Coleman & Fufts, 1982; Marsh, 1995)와 유사하다. 또 객관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하여 더 낮은 학업적 자아개념을 보인다는 국내연구(임형신, 2008) 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아동의 객관적인 학업성취 정도 뿐 아니라 아동 스스로 자신의 학업성취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타인의 성취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고 지금

까지 연구되어왔던 또래의 성취 뿐 아니라 형제의 성취 역시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어머니가 자신에게 학업적으로 편애하는 차별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느끼는 유능감이 높아지며, 자신에게 학업적으로 차별하는 차별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느끼는 유능감이 낮아졌다. 아직까지 부모의 차별적인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적 양육행동을 다른 연구는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학업적 양육행동과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학업적으로 지나친 압력을 주지 않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고한 국내의 연구결과(공경환, 1998; 김기정, 1985; 이환주, 2004)와 유사하다.

한편, 아버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여아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짐을 보고한 MGrath와 Repetti(2000)의 연구와는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어떤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을 통해서 아동에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종백, 2009; 추상엽, 임상문, 2008). 예를 들어, 부모가 같은 수준의 높은 학업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와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강한 압력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받게 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양육행동의 내용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형제간에 보이는 학업과 관련된 차별적 양육행동은 이를 지각하는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는 직접적으로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은 형제에 비해 자신의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신에게 학업적으로 편애하는 차별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쳐 아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느끼는 유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아동의 학업성취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배민경, 2008; 최지선, 2009)와 부모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강홍숙, 2001; 공경환, 1998; 김기정, 1985; 이환주, 2004)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로가 선행연구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형제간 이 성적 차이,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 사이의 경로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부재하는 관계로, 이러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종합하면 형제와 비교한 학업성취도와 어머니의 차별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 형제간 학업성취도와와의 차이와 어머니가 보이는 양육행동에서의 차이가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이 형제와 비교하여 느끼는 학업성취도는 어머니의 차별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이 형제간에 나타나는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있어 아동과 형제의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 또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모든 변인은 아동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동일보고자의 보고로 인해 변인들 간의 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뢰성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차별적 양육행동만을 조사하였으나 최근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배민경, 2008; 최지선, 200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MaGrath & Repetti, 2000)가 나타나고 있어, 형제간 학업성취의 차이와 아버지의 차별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선행변인으로 부모 뿐 아니라 형제를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발달에 대한 형제의 영향력을 밝혔으며, 차별적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변인으로 아동의 능력적 요인인 학업성취도를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학업적 자아개념에 대한 형제와 부모의 영향을 밝혀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

- 강홍숙(2001).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문적 자아개념 · 부의 학력 · 성별 ·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4(1), 249-261.
- 공경환(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2007).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기정(1985).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연구**, 23(2), 35-52.
- 김순혜(1997).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21-44.
- 김의철, 박영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김종백, 김준엽(2009). 학업성취 관련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 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3(2), 389-412.
- 김호권(1979).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한 모의 단계적 연구**.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민경(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격 및 자아개념.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상미현, 김지신, 도현심(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1), 115-124.
- 양명희(2005).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관련 심리적 특성 탐색: 자기조절학습 수준과 자아개념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35-262.
- 이명애(2006). 자아개념이 대학생들에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교육평가연구**, 19(1), 161-181.
- 이재구(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환주(2004).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차별지각에 따른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형신(2008). 일반고와 특목고생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서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정원식(1968). **자아개념검사**. 서울 : 코리안테스팅센터..
- 조진희(1998).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선(2009).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상엽, 임성문(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통계청(2008).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유(15세 이상 인구).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2010년 4월 3일 인출.
- 통계청(2008).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2010년 4월 3일 인출.
- 현주, 이재분, 이해영(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8.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tzaba-Poria, N., & Pike, A.(2008). Correlates of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parental and contextual factors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9(1), 217-32.
- Bong, M., & Clark, R. E.(1999). Comparison between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in academic motivation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139-154.
- Bouchey, H. A., & Harter, S.(2005). Reflected appraisals, academic self-perceptions and math/science performanc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4), 673-686.
- Cicirelli, V. G.(1995).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Plenum Press.
- Coleman, M., & Fults, B.(1982). Self-concept and the gifted classroom: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s. *Gifted Child Quarterly*, 26(3), 116-119.
- Daniels, D., & Plomin, R.(1985). Environmental differences within the family and adjustment differences within pairs of adolescent siblings. *Child Development*, 56(3), 764-774.
- Deci, E.(1995). *Why We Do What We Do*. New York: Putnam's Sons.
- Dunn, J., & McGuire, S.(1994). Young children's non-shared experiences: A summary of studies in Cambridge and Colorado. In E. Mavis Hetherington, D. Reiss, & R. Plomin(Eds.), *Separate social worlds of siblings: The impact of nonshared environment on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Guay, F., Larose, S., & Boivin, M.(2004). Academic self-concept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A ten-year longitudinal study. *Self and Identity*, 3(1), 53-68.
- Köller, O., & Baumert, J.(2006).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How the learning environment moderates the dynamics of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34-349.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rsh, H. W.(1995). A Jamesian Model of Self-Investment and Self-Esteem: Comment on Pelha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151-1160.
- Marsh, H. W., Hau, K. T., & Kong, C. K., (2002). Multilevel Modeling of Longitudinal Growth and Change: Substantive Effects or Regression Toward the Mean Artifact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7(2), 245-282.
- Marsh, H. W., & O'Mara, A.(2008). Reciprocal Effects Between Academic Self-Concept, Self-Esteem, Achievement, and Attainment Over Seven Adolescent Years: Unidimensional and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of Self-Concep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4), 542-552.
- McGrath, E. P., & Repetti, R. L.(2000). Mothers' and fathers'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academic competence.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6), 713-723.
- McHale, S. M., Updegraff, K. A., Shanahan, L., Crouter, A. C., & Killoren, S. E.(2005). Siblings' differential treatment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5), 1259-1274.
- Shavelson, R. J., & Bolus, R.(1982).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1), 3-17.
- Tucker, C. J., McHale, S. M., & Crouter, A. C.(2003). Dimensions of mothers' and fathers'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Links with adolescents' sex-typed personality qualities. *Family Relations*, 53(1), 82-89.
- Valentine, J. C., DuBois, D. L., & Cooper, H.(2004). The relation between self-beliefs and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tic re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39(2), 111-133.

---

접 수 일 : 2010년 7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0월 3일